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1월 10일(월) 총 3매	
담당 부서	노인정책과	담당자	• 장사문화팀장 김창현 ☎440-2831 • 담당자 김영대 ☎440-2832
사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보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설에도 인천가족공원 ‘잠시 멈춤’ , 성묘는 온라인으로

- 코로나19 지속적 대유행에 따른 성묘객 안전 위한 특단의 대응 -
- 설명절 기간(1.29~2.2) 전 시설 폐쇄, 화장장은 정상 운영 -
- 온라인 성묘 상시 운영 -

인천광역시는 인천시설공단과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대유행에 따라 성묘객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해 명절에 이어 올 설명절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화장장을 제외한 인천가족공원의 전 시설이 ‘잠시 멈춤(임시 폐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약 15만의 고인이 안치된 인천가족공원은 명절 연휴 약 35만여 명의 성묘객이 찾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 내 장사시설로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특성상 운영을 중단할 수 없는 만큼 고강도의 코로나 19 방역이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빠르게 확산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등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설명절 전국 각지에서 가족단위 성묘객이 집중 방문할 경우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이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와 인천시설공단은 올 설명절 코로나19의 확산 저지를 위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성묘객들의 방문이 많은 인천가족공원을 부득이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화장장은 정상 운영된다.

인천광역시와 인천시설공단은 설명절 기간 인천가족공원을 폐쇄하는 대신 인천가족공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고인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는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인천가족공원 온라인성묘 홈페이지(<http://grave.insiseol.or.kr>)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시 온라인 성묘는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한 온택트(ontact) 효도로 한 차원 높은 장사서비스를 제공해 온라인 장사시설 둘러보기, 온라인 차례 지내기 등을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왕래가 어려운 설을 맞아 안부를 묻고 확인할 수 있는 동시 접속 커뮤니티(메신저)를 운영해 찾아뵙지 못하는 가족 및 친지간의 갈증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유대감 형성에 주력한다.

인천광역시와 인천시설공단은 성묘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가족에게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해 인천가족공원 폐쇄조치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용수 시 노인정책과장은 “이번 설명절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 급격한 감염 확산 우려로 잠시 멈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시민 및 성묘객의 안전을 위한 특단의 결정으로 연휴동안 인천가족공원 폐쇄를 결정하게 된 만큼 인천 시민은 물론 성묘객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인천가족공원 방문 대신 온라인 성묘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온라인 성묘 이용 절차' 관련 이미지는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